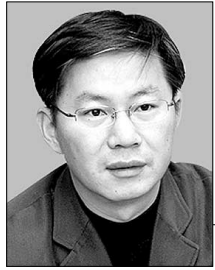


먹구름이 한반도의 하늘을 배회하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를 둘러싼 북미간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미사일 발사가 당분간 유예되거나 폐기될 것으로 보여 당장은 한 숨 돌리게 됐지만 후폭풍이 만만찮아 보인다. 이 시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의 사태에 이르러까지 북한의 '도발'과 미국의 '압박'이 다뤄져 헛바퀴 돌 듯 반복되면서 한반도의 불안정성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하는가이다.

우선 이번 미사일 사태를 개괄해 보자. 5월 초 일본 언론을 통해 미사일 시험 발사 움직임이 최초로 제기되고 미국 언론이 주요 기사로 다루면서 사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어 미·일 정부가 사실 확인에 나서면서 미사일 발사는 기정사실화되었다. 동시에 시험 발사시 미국이 취할 모든 압박수단은 예고되었다.

발사를 막으려는 한·미·중·일의 공식, 비공식 압박과 설득도 급박하게 이뤄졌다. 이후 침묵을 지키던 북한이 지난 20일 한성철 유엔주재 차석대사의 발언과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보도를 통해 대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최악의 상황은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사태를 반추해 볼 때 처음부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



**불자 세상보기**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北 미사일 '도발' 혹은 '카드'**

인다. 발사 의지를 내보이면서 외부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최종 단계에서는 대미협상에 나서겠다는 것이었다. 미국과의 정치적 거래를 염두에 둔 전형적인 '벼랑 끝의 협상' 전술이었다. 6자 회담의 실종과 위폐문제, 인권문제 등 미국의 '외곽 때리기'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 양자 대화를 통해 이를 해소시키려는 의도였다.

애초부터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시험 발사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북한의 미사일개발에 가장 애달아하는 국가는 역시 미국이다.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다. 장거리미사일 발사는 궁극적으로

중국을 겨냥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망(AMD) 구축에 확실한 명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 미국이 설치한 땃에 꼼짝없이 감하는 꼴이 될 사태 전개에 식은땀을 흘렸을 것이다. 북중관계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도발'을 북한이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다.

발사 의도도 없었거나와 실제 가능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벌인 이번 미사일개발은 외부세력의 대북 불신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미국이 양자간 대화에

나서거나 대북관계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거의 없다. 물론 북핵문제가 지지부진한 속에서 미국의 대북 압박에 확실한 반격 카드가 있다는 점을 내외에 환기시켰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간과 국제여론이 북한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미국도 대북 압박정책을 수정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퇴로를 봉쇄한 채 북한을 몰아붙이고 있다는 흔적이 여러 군데서 포착된다. 경위야 어쨌든 9·19공동성명 이후 6자회담의 실종, 경수로 발전소 건설의 종결, 위폐문제 제기 등을 통한 경제 제재, 북한인권법 발효 등 북한이 받아들이는 절망감을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북한이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의사를 밝힌 만큼 대화를 통한 해법의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북핵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북미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거나 상호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전히 6자회담 틀은 유의미하다. 6자회담이 미사일 발사와 대북 제재라는 정면대결을 피하기 위한 명분과 장소로 활용될 여지는 여전히 있다. 9·19공동성명을 되살리고 6자회담을 통해 문제를 푸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1.08명)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깊다. 이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분석도 다양하다. 거의 난무(亂舞) 수준이다.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를 포괄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간단히 그 목록을 살펴보자.

양육 부담, 남녀 불평등, 만혼과 독신 증가, 높은 이혼율, 천문학적 과외비 지출, 부부 중심의 가족 문화 확산, 일자리 부족, 맞벌이,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등 두서없이 늘어놔도 지면이 모자랄 정도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 원인들이 또한 결과다. 원인과 결과가 피비무스의 띠 같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박수를 쳐야 할 일이지 우려해야 할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저출산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도 부인하기 어렵다.

삼성경제연구소는 6월 14일 '저출산 대책, 무엇이 핵심인가'라는 보고서에서, 육아비용 경감, 보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새로마지 플랜 2010'을 비판하면서 '양성평등 환

**저출산, 가족 지키기부터**

경 조성'을 대안으로 내 놓았다. 육아비를 지원하면 '애를 많이 낳을 것'이라는 정부의 목가적(?)인 대책보다는 진일보했지만, 그것으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6월 20일 종교계·노동계·시민단체들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체결식' 결과는 선연적 수준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생명 존중, 공동체 운운 전개와 아울러 결혼·중신·국내인양 장려 및 행복할 가정 만들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한다. 구체적인 대안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

솔직해지자. 문제는 '돈'이다. 정부 대책은 '국가경쟁력 약화와 노령사회에 따른 '세금부담'이 격정이 우선이고, 기업대책은 '시장 축소'와 '인력 확보'에 대한 격정이 우선이다. 모두들 자신의 이익에 기초한 분석과 전망이라는 얘기가.

우리 사회는 극단적인 이기심으로 치달고 있으면서도 사회 보장은 제로(0) 수준이다. 미래에 대한 최소한의 울타리도 없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무책임'이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계의 할 일은 '가족'의 가치를 일깨우는 것이다. 가장이아말로 한국의 유일한 '사회안전망'이다. 이를 위해서 '가족 법회'의 활성화는 물론, 보육시설 운영 등 종단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 **■윤제학(이동문학가)**

**이렇게 들었다** 월드컵의 뒷면

"평화로운 때 유급할 때를 생각해 사람들이 함께 일을 도모한다면 그 나라는 반드시 흥하리라." <중야할 우비세경>

60억 지구촌 축제 '월드컵'이 시작됐다. 인종과 이념 그리고 분쟁의 장벽을 뛰어넘은 월드컵은 이제 단순한 국제 축구대회가 아닌 인류의 거대한 '스포츠 이벤트'가 됐다. 4년 전 대한민국대표팀이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룩했을 때 온 국민이 '붉은 악마'가 되어 "대-한민국"을 외쳤던 감동과 희망의 전율은 아직도 생생하다.

하지만 매스미디어가 월드컵 열풍을 지나치게 호도하고 이와 맞물린 상업주의는 자칫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지금 우리 앞에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치·경제·군사·외교적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 스포츠로 하나 되는 전 국민의 축제에 찬물을 끼얹자는 얘기가 아니다. 다만 월드컵보다 더 중요한 정치적 이성을 냉정히 되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언론의 무분별한 월드컵 방송으로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북한의 대표 등 미사일 발사 △외환은행 월급 매각 사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집단해고 등 국가적 안보와 중차대한 경제사안들이 뉴스의 후순위로 밀려나거나 여론의 관심 밖으로 사라지고 있다.

'휴가중후군'이 있듯 월드컵이 막을 내리고 국민들이 '월드컵중후군'에 빠질 즈음 그동안 뒷전이었던 중차대한 사회 전반의 문제와 그 충격과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뒤통으로 돌아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월드컵은 분명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심어줌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이 국가안보와 경제를 책임질 수는 없는 일이다. '월드컵 광풍'에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을 경계할 때다. **■노병철(예배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조선왕조실록 원대 자리로**

지난 583호 현대불교신문에 실렸던 '해의유출문화재 환수 대책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해의유출문화재와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다. 기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해의 유출 문화재는 약 7만 5천여 점이고, 이 중 불교 관련 문화재가 40%를 차지한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환수건을 계기로 설립된 조선왕조실록환수위원회 외엔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해의 유출 문화재 환수 단체는 전무한 상태다.

따라서 해의 유출 문화재 환수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 및 방안은 정부가 앞장서서 마련하고, 반한 회수 운동은 정부와 민간이 다양하게 접근하는 방식이 마련돼야 한다. 또 반한 회수 운동은 민간이 전면에서 나서고 정부는 각종 제도를 통해 다각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서울대 규장각 '기증'된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을 원대 자리인 오대산 월정사로 '반환'하는 방안에도 불교계의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월정사는 오대산 사고의 수호를 책임지는 '수호총서' 사찰로서 조선후기 300년 동안 오대산 사고를 지켜 왔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올해는 오대산 사고가 설치된 1606년부터 400

주년이 되는 해로서 환수된 실록을 원상 복구 하는데 의의가 큰 시점이다. **김달재(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불교자원봉사 시스템 마련해야**

지난 주 현대불교신문을 통해 불자 자원봉사활동이 타 종교에 비해 저조하다는 기사를 보면서 먼저 든 생각은 이제 불교계도 언제라도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한해동안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봉사자 총 34만 5604명 가운데 개신교 신자가 2만 7650명, 가톨릭 신자가 1만 5775명 인데 반해 불자는 1만5528명으로 가장 낮게 조사됐다고 한다.

이는 타종교에 비해 불교복지시설이 지역사찰과 신도간의 연계된 지원체제가 합리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정말 그렇다. 나도 매일 주말이면 내가 다니는 사찰에서 군포교를 위해 장애인들에게 수지침 봉사를 간다. 다행히 우리 사찰에서는 정기적으로 군부대와 자매결연 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내가 아는 한 불자는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 마음만 먹은 것으로 그치는 것을 종종 본다.

부처님께서는 이웃에 대한 보살행을 강조하셨다. 그러므로 우리 불자들은 항상 남을 비해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야 불자로서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이런점에서 불교계도 불자들이 언제라도 봉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불자들도 이번 조사 결과를 깊이 반성하고 타종교인들에 결코 뒤지지 않는 봉사정신으로 각종 복지시설이나 사찰에서 봉사하는일에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김문하(서울 종로구 낙원동)**

**조계종 가사불사 유감**

조계종의 가사불사는 오해 없이 진행해야 한다.

가사를 길거리에서 치수에 맞게 맞추어 입는 의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가사는 분별 법의이다. 가사불사는 독점이 라는 상업적 잣대로 규정해서는 안된다. 종단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가사라면 진작부터 시중에 유통되지 말아야 했다.

그러나 이왕에 하는 불사라면 조계종 승적과 법계에 맞게 배포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현실은 비용을 받고 배포하기 위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분별 가사를 통일하고 체계를 확립하는 것에는 좋은 일이다. 더구나 종단의 주정처럼 승적관리나 법계관리를 위해서라면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게 시일이 걸리고 비용이 들더라도 종단예산으로 배포해야 했다.

**객관(부산뉴스)**



**예·효 실천을 위한 현대불교 윤년 특별 기획**

장락수(長樂壽)는 장수(長壽)의 기원과 정성을 담은 불자수의입니다. 불자님과 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현대불교신문에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소중한 효심을 담아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불자수의 '장락수(長樂壽)'를 지었습니다. 예로부터 윤년에 지은 '윤년수'는 말이 없고 손이 없어 부모님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최상의 효행 선물이었습니다. 불자들이 윤년윤달에 준비한 장락(長樂)과 장수(長壽)의 기쁨을 드릴 불자수의 장락수(長樂壽)는 부모님께 깊은 만족과 감동을 드릴 것입니다.

**불자수의 장락수**  
長樂壽

**장락수의 특징**

- 원사직물시험연구원의 원사심사와 품질보증 Q마크를 획득한 믿을 수 있는 제품
- 30년 경력의 전문가가 면사실로 직접 제작
- 옷감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특별 주름·제작한 수의함

품명	재질	특징	판매가
珍品	대마 100%	최고급 원단 안동포로 제작한 한정된 물량의 최고급 불자수의	4,500,000
名品	대마 100%	최상의 중국산 흑대마, 안동포 전통가공법으로 제작 품격 유지	1,800,000
特品	대마 100%	중국산 사천대마, 남해포 전통가공법으로 제작 실용적 가격	1,450,000
上品	저마 100%	중국 현지에서 엄선된 고급 수직저마를 원단으로 제작한 수의	600,000

\* 땀에 추가 주문시 판매가의 10%가 추가됩니다.

**제품구성**

- 남성용(18중) : 도포 도포 끈 두루마기 저고리 속저고리 겹바지 속바지 천금 지금 베개 면모 버선 오냥 허리띠 대님 장매 악수 고깔
- 여성용(17중) : 원삼 원삼 끈 두루마기 저고리 속저고리 겹치마 겹바지 속바지 천금 지금 베개 면모 버선 오냥 장매 악수 고깔

**현대불교신문사 기획사업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전화 02)737-0695(직), 2004-8219 / 팩스 02)737-0696  
홈페이지 http://biz.buddhapia.com e-mail : onlymaum@buddhapia.com

